

화두참구의 길잡이! 간화선의 필독서! 선어록의 최고봉 《벽암록》

1. 시인 석지현(釋智賢) 스님이 여주·해설현(벽암록)은 국내 최초의 완역본이다. 번역 기간 9년, 출판 기간 3년 걸린 책이다. 이 책은 원문에 토(吐)를 달고 번역과 해설을 붙인 책이다. 또한 이본(異本)을 대조하여 원문에 대한 교감(校勘)을 했으며(벽암록 속어(俗語) 낱말 사전)를 첨부하여 독해에 절대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따라서 석지현 역해(벽암록)은 선어록 역주의 새로운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번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이 책의 특징
첫째, 기존의(벽암록)번역은 대부분 수시(垂示)·본칙(本則) 정도만 번역했다. 그 뒤의 본칙작어·본칙평창·송·송작어·송평창 등은 번역하지 않았다. 석지현 역주(벽암록)은 그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은 완역본(完譯本)이다. 벽암록 완역(完譯)은 국내 최초이다.
둘째, 기존의(벽암록)번역은 대부분 단순한 글자번역이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데 비하여 본(벽암록)은 원문의 정확한 번역과 뜻해설, 원문의 낱말풀이 등을 곁들였다.
셋째, 이 책은 단순한 교양서의 입장에서 번역 해설을 붙인 책이 아니라, 선수행(공안참구)상에 있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의 입장에서 해설을 붙였다.
넷째, 이 책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원문의 이본(異本) 대조를 통한 충분한 교열을 거쳐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한 번역이다.
다섯째, 이 책은 우리말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살려내면서 번역했기 때문에 선문(禪文)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속어(俗語) 낱말사전을 별도로 만들어 각 척의 해설과 함께 이 사전을 참고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독파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선어록에 대하여 별도로 사전을 만든 경우는 처음이다.

3. 벽암록은 어떤 책인가?
벽암록은 선어록(禪語錄)의 백미이다. 선의 문헌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책(宗門第一書)이자 선종문화의 총결산이다. 벽암록은 선수행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다. 선수행을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체험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공안(화두)참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화두(公案)의 암호해독 즉 공안 타파(公案打破)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안의 암호해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달은 선지식을 만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선지식을 만나기란, 아니 깨달은 선지식은 그리 흔치 않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 여기 《벽암록》이 있다. 벽암록의 공부와 공안참구의 좌선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암호해독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벽암록은 선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참해야만 하는 수행의 필독서이다.

4. 벽암록이 출현하기까지
벽암록은 설두종현(980 ~ 1052)과 원오국근(1063 ~ 1135) 선사에 의해 완성됐다. 설두는 《조당집》《전등록》 등 옛 선사들의 어록에서 공안 100칙을 가려 뽑아 여기에 각각 송(頌)을 붙여《설두송고백칙(雪竇頌古百則)》이란 책을 출간했다. 이《설두송고백칙》에 원오 선사가 수시(垂示) 작어(著語) 평창(評唱)을 붙여 비로소《벽암록》이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벽암록 출현 이후 선수행들은 너무나 벽암록의 문자공부에만 몰두, 선수행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원오의 제자 대혜종고(1089 ~ 1163)는 벽암록 판각과 책들을 모두 한 데 모아 소각해버렸다. 그 후 원나라 초기에 거사 장명원(張明遠)에 의해서 벽암록은 다시 복간됐다. 불 속에

서 영영 재로 사라져버렸던 벽암록이 불현듯 불사조가 되어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5. 벽암록의 구조
벽암록은 수시·본칙·본칙작어·본칙평창·송·송작어·송평창 등 7종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본칙(本則)은 옛 공안(古則, 또는 公案)으로서 벽암록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100개의 옛 공안이 벽암록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앞의 수시와 뒤의 작어, 본칙의 평창, 송, 송의 작어, 송의 평창은 모두 이 본칙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차물들이다.



신국판 전5권 각권 500쪽 내외, 값 145,000원(전5권)
민중사 문의 02)732-2403

불교성전의 편찬과 세계속으로 불교 홍보



헤인스님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헤인스님) 역경원이 '불교성전(부처님 말씀)'을 편찬했다. '불교성전'은 부처님 말씀의 정수를 뽑아 엮은 책으로 부처님, 가르침, 제행, 도반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은 내용이 충실하고 문장도 쉽고 평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책 앞쪽은 한글로 기록하고 책 뒤쪽은 영문으로 실어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부록에는 불교통사, 생활 색인, 용어 해설, 증지부 등이 수록돼 있다. 제1편 부처님편에서는 1장 역사 속의 부처님, 제2장 영원의 부처님, 제3장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덕으로 구성 되어 있어 쉽게 부처님의 생애를 접할 수 있고 제2편 가르침 편에서는 인연, 사람의 마음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깨달음의 본질, 번뇌로 이어지는 논리적 전개 후 마지막 부처님의 구원에서는 부처님의 서원 및 정토로 이어지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조경했다. 제3편 제행은 깨달음의 길과 실천의 길로 계를 각 경전을 바탕으로 고증하여 계율의 중요성을 설하였다. 제4편 도반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생

활 지침을 경전에 의거해 설명해 놓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면 삶이 풍요 해짐을 밝혀 놓았다. 마지막 제5편 불국도에 서는 부처님의 나라와 부처님 나라를 지키는 자를 통해 불국도를 말하였다. 헤인스님은 책 서문에서 "이 경전을 함께 하는 이, 행복 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서문 -

『이 경을 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다 겁생(多劫生)동안 고행을 통고서 비로서 보리수 밑에서 정각(正覺)이루신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으니 광명이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청정심으로 종(宗)을 삼고, 중생의 믿음은 청정하지 않은 것으로 종(宗)으로 거울을 삼는다. 중생에게는 미혹 때문에 중생이 되고 모든 부처님은 청정심으로 부처가 되었다. 중생과 부처는 영상이며 삶과 죽음은 이름 뿐이다. 만일 사람이 부처로서 거울을 삼는다면 '계, 정, 혜'가 모든 청정심이 선(善)이 되어 신과 하늘 성문 연가, 보살 여래가 이로 인하여 나오는 줄 알면 믿고 따르지 않는 이 없고, 중생으로서 거울을 삼는다면 탐, 성, 어리석음이 모든 악의 종이 되어 수라, 축성, 지옥, 아귀가 이로부터 나오는 줄 알 것이다. 선과 악은 다르다 해도 종(宗)은 동일하다. 한 방

세계 포교, 그 첫걸음 중국

헤인스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께 겨자씨 만큼이라도 보은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서 불교성전의 출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불교성전 편찬에도 선구적인 노력으로 내일의 불교를 준비해온 헤인스님은 세계속으로 불교를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첫번째 걸음이 중국이다.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는 등 21세기의 중심은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중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8년전 한국 불교의 중국내 설파를 위한 일환으로 중국 남경대학

남경중의약대학 중의약(한의학)과와 모든 학과에 꾸준히 유학생을 배출 하고 있는 남경중의약대학 한국불교(총장 헤인스님)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중국을 목표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UN에서도 인정된 세계 100대 대학교중 세계 친구 1위 명문국립한의학 대학인 남경중의약대학은 중의학, 중의미용, 중의외과학, 중약학, 침구학 전공 등 11개의 전공과목을 비롯해 학부, 석사, 박사 과정으로서 한국대학교에서는 체계화된 관리시스템과 한국의 지도교사들이 항시 상주하여 유학생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삼화불교대학 학장을 18년간 역임한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헤인스님의 노후가 중국 유학을 꿈꾸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격변하는 세계에 동반자의 자세와 더불어 2013년에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소욕지족(小欲知足)'의 해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



값 15,000원
문의 : 02)511-2026

불교와 역학의 간극은 서로 좁아질까



송월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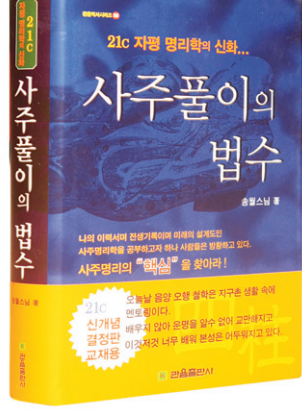
이 시대 전자 문명의 반도체는 과학문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 원리가 하도의 음양오행과 일치한다고 1967년 일본인 가와하다가 "컴퓨터의입문"이란 책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컴퓨터의 소재는 음전자와 양전자이며 이것을 역학의 하도의 오행 성립구조에 맞추어 기계화한 것이다. 하도 음(-)양(+), 컴퓨터의 음양전자, 하도오행, 컴퓨터의 5개 구조 입력, 출력, 기억, 연산, 제어가 일치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양 오행과 과학의 만남이듯, 불도 수행자와 음양 오행학의 만남이란 전혀 이상 할것도 없고 생소하지도 않을 듯싶다.

오행 역학 출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그것은 관음출판사가 간행한 "사주학핵심비결"에 이어 "사주풀이의 법수"가 발행되었다. 이 책은 고전 자평명리학의 핵심인 자평수술 30편인 자평

음양 오행과 과학의 만남이듯, 불도 수행자와 음양 오행학의 만남도 전혀 생소하지 않을 듯

진전의 골수를 새롭게 집필한 것이다.
즉, 저자인 송월스님이 오랜 세월 어렵게 공부하여 직접 임상했던 실천비법을 공개한 책이다. 이 책에서 특이한 점은 용신을 빠르게 정하는 법이지만 신살(神殺) 편에서 피하기 어려운 흉한 살성을 제압 하도록 다른 역학 서적에서 볼수없는 주문(呪文)이 하나 하나 모두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생살이에서 취길피흉(取吉避凶)의 참뜻이요 저자의 마음일 것이다. 운명을 상담하면서 나쁘다고 지적은 하지만 나쁜 것을 극복해 나아갈 방법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송월스님의 저서인 "사주풀이의법수"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용신과 격구이라 하였다. 저자인 송월스님은 수많은 격구 이론은 모두 버리고 오직 자평진전에 근거한 월령위주의 용신법인 11개의 육신 위주로 체계화하였다. 수많은 내방객에서 임상한 간단 명료한 용신과 희신과 기신과 사주의 병(病)을 5초 이내에 구분하여 사주를 간명하도록 하였



값 75,000원
관음출판사 저자 초청 특강
문의 : 02)921-8434

청담 ART 십이지상 천연황옥(印)

존경하는 스님! 불자님 보살님 사주대중님들!
'나'를 대신하는 인감도장 낙관 법인감 등을 제대로 된것을 갖추고 계십니까?
혹, 막도장이나 싸구려 등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기! 세계 하나뿐인 '명품'이 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명품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인의 띠(十二支狀)을 형상화한 천연황옥(印)
주문 ⇒ 생년 월, 일, 시 성명감정 ⇒ 수작업 ⇒ 배송

本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스마트폰으로 QR Cord를 찍으시면 회사소개와 황옥에 관한 많은 정보 및 조각예술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cheongdamartworld.com

천지운명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과 운명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는 책!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 읊은 시
나의 운명 나의 건강 108가지 민간요법
108가지 약초 담그는 법
108가지 꽃 효소 만드는 법
치유와 깨달음의 미학, 달마도
무량 지음 | 신국대판 | 474페이지 | 장가 50,000원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첫 페이지에는 서산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을은 시"와 "권후가"가 들어있으며 우리들의 운명과 건강이 자세히 설명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즉, 효소 담그는 방법, 여러 가지 약재를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운명"은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특별로 각각 수록되어 있어, 모두 돌려 읽어 서로가 서로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스님의 108가지 비방
소송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약초 쓰는법" "약초 담그는 법"을 12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연구하여 정성으로 불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각 사찰 스님들께는 30%로 할인을 해드리면서, 꼭 스님분들이 알아야 하는 비방법을 써서 전국 사찰 스님께 소정에 값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꼭 스님 분들만 알고 계시어 불자님들이 답답하고 힘들때, 모방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책으로서 다음 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사찰명을 잘 알아 두었다가 꼭 주문하세요. 각 사찰 스님분들께서는 이 책을 잘 읽어 보시고 불자들에게 많은 포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업)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 환영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